



중남미 지역 자동차보험 보장공백과 과제¹⁾

최예린 연구원

영향

중남미 5개국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약 58%로 보장공백이 크며, 그 원인은 가격, 낮은 금융이해도, 현행법의 강제성 부재 등임. Swiss Re(2019)는 보장공백 감소 방안으로 소액보험, 보험상품 혁신 및 기술의 도입, 새로운 유통채널 등을 제시함. 아울러 보장공백 감소를 위해 중남미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의무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, 규제당국은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시장 상황에 맞는 관련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

- 중남미 5개국²⁾의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약 58%로 보장공백이 크며, 5개국 중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만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음
 - 중남미 5개국의 자동차보험 보장공백은 각국의 소득 수준과 제도, 의무 여부에 따라 다른데, 금액 면에서는 브라질이 510억 달러로 가장 크고, 가입률은 멕시코가 약 30%로 가장 낮음
 -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, 배상책임이 제한된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은 중남미 지역에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
- 중남미 지역의 자동차보험 보장공백 원인은 가격, 낮은 금융이해도, 현행법의 강제성 부재 등임
 - 중남미 지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고소득 국가의 두 배 가량 되며³⁾, 높은 자동차 수리비용,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에 의해 보험료가 높음
 - 또한 중남미 지역 소비자의 금융이해도(Financial Literacy Rate)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⁴⁾
 - 중남미 지역은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았거나, 의무화 대상이 제한적임
 - 멕시코의 경우, 2014년부터 최소한의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었지만 지방 및 주 도로가 아닌 연방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만이 해당됨

1) Swiss Re(2019. 5. 15), “The Motor Protection Gap in Latin America”를 발췌함
 2)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멕시코로, 중남미 전체 보험시장의 약 80%를 차지함
 3) IDB(2018. 12), “Road safety: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”
 4) S&P Global Finlit Survey

- Swiss Re(2019)는 보장공백의 축소를 위해 보험상품 혁신 및 기술 도입, 소액보험, 새로운 유통채널 개발 등을 제안함
 - 운전습관연동(이하, 'PHYD', Pay-how-you-drive) 또는 주행거리연동(이하, 'PAYD', Pay-as-you-drive)으로 합리적이고 차등화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품은 구매와 청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
 - 사물인터넷(IoT: Internet of Things)을 활용한 PHYD, PAYD의 도입 또는 온라인 판매,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청구 등의 기술 도입도 필요함
 - 보험회사는 휴대전화 네트워크, 금융기관, 보험 에그리게이터(Aggregator) 등과 같은 대체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잠재 고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

- 또한, Swiss Re(2019)는 보장공백 감소를 위해 중남미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의무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, 규제당국은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시장 상황에 맞는 관련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
 - 아울러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야 함 [Kiri](#)

〈표 1〉 중남미 자동차보험 보장공백 원인과 해결책

문제점	해결책				
	소액보험	보험상품 혁신	기술도입	유통채널 개발	정부의 역할
가격	○	○	○	○	○
보험료 청구 비용			○	○	
보험상품에 대한 낮은 인식		○		○	
보험회사에 대한 불신	○	○	○	○	○
보험상품 구입의 어려움		○	○		○
규제 및 입법					○
현행법의 강제성 부재					○

자료: Swiss Re(2019. 5. 15), "The Motor Protection Gap in Latin America"